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고뇌의 양상과 극복

指導教授 許允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尹 永 惠

2007年 2月

#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고뇌의 양상과 극복

指導教授 許允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尹永惠

尹永惠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고뇌의 양상과 극복

尹永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允德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는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많은 시를 썼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대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인간 고뇌의 원인인 불안과 공포, 고독과 소외감 등 그의 시적 주제를 표현하는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그의 끊임없는 관심은 이러한 고뇌의 원인과 양상을 시를 통해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생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었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고뇌의 원인과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자연과 인간의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시에서 자연을 어둡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공포와 절망감을 주고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그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고자 자연에 맞서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프로스트는 자연이 인간에게 냉담하며 심지어는 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악의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자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한 고립과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이라는 환경에 순응해야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

※ 본 논문은 200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의를 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러한 자연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고뇌에서 프로스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시에서 이해와 의사소통의 단절에 기인한 인간 상호간의 갈등을 다루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연이라는 배경의 상징을 사용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노동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개성을 이해하고 타협함으로써 그런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인간 고뇌의 양상 세 번째로, 프로스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고뇌 극복 방안으로 프로스트는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신의 고립이나 단절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노동은 자연과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의미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그 가치를 깨닫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초점은 광대하고 다양한 인간 고뇌의 심연을 배회하는 데에 있다. 비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협적인 자연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면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프로스트의 시가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이와 같은 고뇌 극복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의 시는 누가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성을 지니는 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스트가 인간의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 목 차

I. 서론	1
II. 고뇌의 원인과 양상	
1. 자연과 인간의 단절	6
2.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	22
3. 이상과 현실의 갈등	37
III. 고뇌 극복의 형태	45
IV. 결론	61
Bibliography	66
Abstract	69

# I. 서론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가 본격적인 시작활동을 했던 20세기 초반은 다윈(Darwin)의 진화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대적으로 근본적인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문학사적으로는 엘리엇(T. S. Eliot)나 파운드(Ezra Pound)등을 중심으로 현대 문명의 병폐를 비판하는 문학사조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인간성의 상실이나 소외의식 등을 주제로 하여 현대시 창작 기법과 비평의 이론에 부합하는 모더니즘(modernism)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프로스트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의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배경으로 하는 시를 주로 썼다. 그것은 기계문명과 도시문화의 팽창으로 지나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에 그가 보여주는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이다.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삶이라는 소재 때문에 단순히 전원시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스트 자신이 1953년 있었던 TV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을 자연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시중에서 인간에 관한 시가 아닌 것은 단 두 개 밖에 없습니다.”<sup>1)</sup> 라고 밝힌 것처럼 단순히 그의 시가 자연시라고 볼 수 없으며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삶과 노동, 고통 등에 초점을 맞추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연을 다루면서도 자연을 노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시를 썼다. 특히 그는 자연과 관련하여 인간이 겪는 고뇌의 원인과 양상을 그의 시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인간 고뇌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1)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8.

프로스트의 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삶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에 맞서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그에 대한 삶의 해명을 제시한다. 즉 프로스트는 자연을 통해 본 인생의 궁극적인 통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와 태도를 찾으려 한다. 프로스트의 시의 주제에 대해서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와 트릴링(Lion Trilling)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스트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태도를 1958년 몽고메리는 정서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몽고메리는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장벽이 프로스트의 주된 주제라고 언급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장벽을 세워 올리거나 파괴시키는 것에 관여한다. 프로스트의 관점은 시 전체에 일관된다고 몽고메리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남는다.” 몽고메리는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며 신(God)의 은총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트릴링은 프로스트를 “공포를 주는 시인”이라 칭하며 오랫동안 장수하며 좋은 작품을 썼던 소포클레스(Sophocles)에 비교하였다. “그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평이하고 명백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중은 두려운 것들을 평이하게 그려내는 시인만이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sup>2)</sup>

트릴링이 프로스트가 소포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이 무서운 것을 알기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은 프로스트의 시의 주제가 보편적인 삶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프로스트가 주로 소재로 다룬 뉴잉글랜드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삶은 평이

2) John David Sweeney & James Lindroth, *The Poetry of Robert Frost: A Critical Guide to Appreciation of Meaning, Form, and Styl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p. 79-80.



하고 소박한 것으로 그 일차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뒤에는 항상 삶의 본질과 해명 그리고 극복에 대한 이차적인 의미가 숨어있고 이것이 바로 그가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통찰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소재로 그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것을 잘 나타내어 그의 시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간단하게 보이는 시의 소재를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는 프로스트의 시적 주제가 얼마나 인간의 삶과 깊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진지함과 철학적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음은 라이넨(John F. Lynen)의 견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비록 비평가들이 프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과 농부로서의 명민함 그리고 야만적인 자연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프로스트의 자연시와 우리를 제약하는 19세기의 자연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sup>3)</sup>

프로스트는 시의 소재가 되는 거대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는지 보여준다. 때문에 자연은 하나의 배경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보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두려움, 소외, 상실감과 단절감이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엄연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3) John F. Lynen,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in *Nature and Pastoral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pp. 140-161.

확실히 프로스트의 시는 자연의 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를 “자연 시인”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연의 찬송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어둠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그의 시를 왜곡하는 것이다. 프로스트가 자연에서의 찾는 즐거움을 표현한 시들이 있지만—예를 들어 「풀베기」(“Mowing”), 「씨심기」(“Putting in the Seed”) 또는 「마주보는 두 사람」(“Two Look at Two”)—그는 자연을 사랑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심오한 불안감 심지어 두려움과 같은 주된 감정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풍경 속에 프로스트 자신이 존재했는지는 모르나 그 속에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sup>4)</sup>

프렌츠(Roberts W. French)가 지적한 대로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프로스트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 중 자연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시를 많이 썼다. 자연의 부정적인 면이란 인간에게 가하는 자연의 공포를 뜻한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뉴잉글랜드 지방의 자연에 관한 정서를 담으면서도 아름답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냉엄하고도 무서운 정경이 공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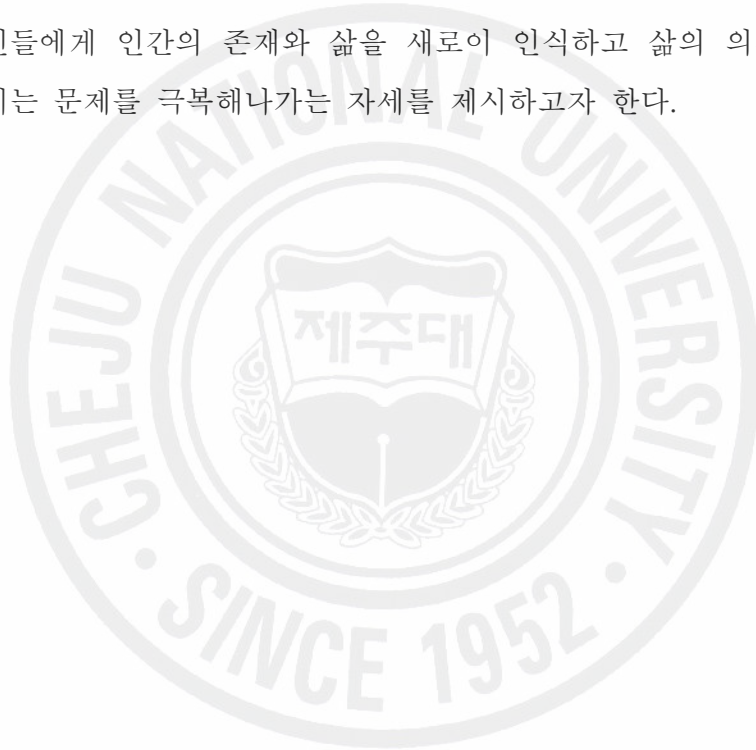
프로스트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의 고뇌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상호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대립 등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감, 고독 등에 관해서도 많은 시를 썼다. 그는 고독과 단절의식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이 겪는 고뇌의 원

---

4) Roberts W. French,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in *Critical Essays on American Literature*, ed. Phi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p. 155.

인과 양상을, 첫째,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시, 둘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고립을 보여주는 시, 셋째, 인간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로 구분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시에서 다루어지는 고뇌의 양상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극복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프로스트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와 통찰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도시문명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존재와 삶을 새로이 인식하고 삶의 의의와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고뇌의 원인과 양상

### 1. 자연과 인간의 단절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뉴잉글랜드 지방의 자연과 관계가 깊다. 눈 덮인 숲, 돌담, 과수원 등도 그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날씨 또한 대체로 눈이 많이 내리고 겨울은 춥고도 길다. 프로스트가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그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때때로 아름답고 소박한 전형적인 전원적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냉혹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프로스트의 시에 배경으로 쓰이는 자연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자연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정적인 면이란 자연의 어두운 면으로 인간에게 가하는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말하며 긍정적인 면이란 자연의 밝은 면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얻는 희망과 용기와 같은 재생의 의미를 뜻한다.

그러므로 확실히 자연은 자비로운 신으로 숭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자연은 험악한 표정을 가진 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을 말살하기 위하여 내려치는 천둥번개를 가진 존재로 무섭게 묘사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 요소들이 공존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적대자이기도 하다.<sup>5)</sup>

거버의 지적은 자연을 바라보는 프로스트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

5) Philip L. Gerber,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66), pp. 157-158.

우선 긍정적인 모습의 자연에서 인간은 자연 생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다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연의 모습으로는 자연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 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그러한 자연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시들을 썼다. 즉,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삭막하고 인간에게 무관심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공포와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혹독한 자연과 마주할 때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관심하고 위협적인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감에 외롭고 또 더러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상실감과 삶의 허무를 느끼기도 한다.

단순히 19세기의 낭만주의 시인들과 다른 자연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프로스트의 시가 단순한 자연시가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프로스트의 자연관은 워즈워드(W. Wordsworth)의 그것과는 다르다. 워즈워드와 같은 낭만시인들이 생각하는 자연 속에는 우주의 혼(spirit)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어서 인간이 그 혼을 느낄 때 숭엄한 의식을 얻게 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프로스트의 자연은 아름답고 자비롭기도 하지만 냉엄하고 삭막하여 시인은 그 앞에서 소원감과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연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의 양면성은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그 사이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시인의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드가 주로 자연세계의 파노라마를 감정적으로 잘 전개하는 반면에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드라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sup>6)</sup>

프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를 감탄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 워즈워드와 자연에 도취되어 흘러넘치는 감정으로 자연을 찬미하며 인간을 그에 몰아일체 시킨데 반해 프로스트는 자연보다 인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연에서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시에 담아 자연과 인간은 일치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프로스트가 다루는 자연은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중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인간에게 뚜렷한 의미를 전해주지 않으며 혼란을 준다. 자연은 호의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며 때때로 나타나는 어둠의 이미지는 두려움을 일으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더한다. 그의 자연은 더 이상 감정의 대상이 아니고 늘 시적 화자와 거리를 둔 채 모호한 속성으로 묘사된다. 자연은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위협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띤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잔인하다고 까지 그것을 묘사하는 순간이나 경우가 생긴다. 자연은 무관심하며 아마도 심지어는 인간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자연은 인간보다 강하여 결국 인간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고독과 좌절감에 무너지는 것이다.<sup>7)</sup>

프로스트는 인간의 현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

---

6) Marion Montgomery,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in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8.

7) James L. Potter, *Robert Frost: Handboo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p. 117.

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자연의 부정적인 모습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과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난관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의적이며 소원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프로스트 시는 인간의 잠재력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의식한다.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뚜렷이 보여주며 자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파괴성을 보여주는 시에는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Once by the Pacific”)가 있다.

부서진 물결은 뿌옇게 소란을 피웠다.  
거대한 파도는 밀려오는 다른 파도를 돌아보며  
여지껏 물이 물에 가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볼까하고 생각하였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털 뭉치 마냥 깔려있었다.  
번쩍이는 눈 위로 쓸려내린 머리카락처럼  
벼랑이 해안을 받쳐주고  
대륙이 벼랑을 받쳐주고 있음이  
아무래도 찬 밤이 밤뿐 아니라 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광분함에 대비함이 좋을 것이다.  
「불을 끄라」는 신의 마지막 말이 있기 전에  
부서지는건 바닷물만이 아닐 것이다.

The shattered water made a misty din.  
Great waves looked over others coming in,  
And thought of doing something to the shore  
That water never did to land before.  
The clouds were low and hairy in the skies,

Like locks blown forward in the gleam of eyes.  
 You could not tell, and yet it looked as if  
 The shore was luckily in being backed by cliff,  
 The cliff in being backed by continent;  
 It looked as if a night of dark intent  
 Was coming, and not only a night, an age.  
 Someone had better be prepared for rage.  
 There would be more than ocean-water broken  
 Before God's last *Put out the Light* was spoken.

(1-14)

이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음산하고 거센 기세로 육지를 삼켜 버릴 것 같은 파도와 구름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밤은 적의를 띤 모습으로 분위기를 더 음산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칠 듯한 불길한 예감을 더해준다. 이 시에는 바다로 대표되는 자연과 육지로 표현된 인간세계의 대립과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 파도가 주는 긴장감은 자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프로스트의 시들 「하인들의 한 하인」, 「비둘기들의 마녀」 「설계」 「밤과 사귀기」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 등은 프로스트의 작품에서 트릴링이 프로스트를 부르는 공포 시인(terrifying poet)이라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스트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가볍게 평가되어왔으나 트릴링은 아주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그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평에 큰 헌신을 했다. 그러나 어조와 주제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시들이 프로스트의 시의 전부는 아니다. 그의 시는 광대한 스펙트럼에 까지 뻗어 있다. 자연의 존재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찬사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노동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보상에 대한 서정적이고 극적인 순간이



그 스펙트럼의 끝이 될 수 있다.<sup>8)</sup>

자연의 부정적인 모습 및 자연과 인간의 단절과 함께 프로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삶에서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고 함이다. 자연의 공포와 함께 프로스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일에서 찾는 만족감 또는 성취감을 통해 그 공포를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이 자연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일시적인 자연의 그러한 공포와 자신의 인생을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것이 전부였다」(“The Most of It”)에서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인 메아리뿐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외침에 답해주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어느 날 아침 자갈 깔린 물가에서  
그는 인생에 대하여 외쳐댔다.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메아리치는 사랑의 복사한 대답이 아니고  
화답하는 사랑이요.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Some morning from the boulder-broken beach  
He would cry out on life, that what it wants  
Is not its own love back in copy speech,  
But counter-love, original response.

(5-8)

---

8) Alvan S. Ryan, “Frost and Emerson: Voice and Vision,” in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p. 136.

화자는 자신이 그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인 것이다. 그는 어떤 “표지(sign)” 를 찾고 있다. 그것은 자연이 자신에게 “화답하는 사랑이요. 우리나라는 사랑(counter love, original response)” 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반대편 벼랑 끝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물살 소리가 나면서 화자는 혹시 자신의 심정을 알아줄 상대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기대한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한 마리의 숫사슴이었고 외로운 화자는 혹시나 사슴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대하지만 사슴은 오히려 화자와 자연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 다만 맞은편 벼랑 밑에  
무엇인가 소리를 내더니  
먼 곳의 물속으로 첩병 뛰어 들어  
잠시 해엄을 치고 나서  
가까이 온 것을 살펴보았더니  
사람은 아니고, 그 외의 또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그것은 한 마리의 숫사슴  
물결을 헤치며 앞으로 와서  
폭포같이 물을 뿌리며 육지로 올라와  
단단한 걸음새로 둘 사이를 달려가  
덤불 속으로 밀고 들어갔다.—그것이 전부였다.

And nothing ever came of what he cried  
Unless it was the embodiment that crashed  
In the cliff's talus on the other side,  
And then in the far distant water splashed,  
But after a time allowed for it to swim,  
Instead of proving human when it neared  
And someone else additional to him,

As a great buck it powerfully appeared,  
Pushing the crumpled water up ahead,  
And landed pouring like a waterfall,  
And stumbled through the rocks with horny tread,  
And forced the underbrush—and that was all.

(9-20)

마지막의 “그것이 전부였다.”에서 화자 또는 프로스트가 과연 그 대답을 얻었을까? 그것이 그가 찾던 어떤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프로스트의 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도 그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가 바라는 것은 삶에 의미를 갖게 해주는 참된 사랑이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삶에 지쳐 방황할 때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려 한다. 이 시의 화자 역시 자연에서 찾는 답을 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좌절되고 자연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화자는 자연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고독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대담한 개요를 통해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는 간극을 보여준다. …… 그가 제시하는 그림은 확실히 활기찬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예쁘지도 않다. 그것은 인상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고귀하고 인간과 자연사이의 현실의 차이점을 표현하는 관점이 얼마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한다.<sup>9)</sup>

프로스트가 시에서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자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삶의 해명을 구하는 모

---

9) Lynen, p. 122.

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구하는 물음에 대해 자연이 답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로 인간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라이넨의 지적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자연으로부터 사랑의 표현에 대한 인간의 탐색은 약간 감상적이거나 어리석은 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혼자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sup>10)</sup>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나 자연을 통해 낭만적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감상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일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상대가 보내오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삶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야말로 프로스트가 제시하는 인간 스스로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이다.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 시의 화자는 숲의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은 어둡고 화자는 그 어두움에 이상하게도 매혹된다.

이 숲의 주인을 난 알 것 같다.  
하기야 그는 마을에 살고 있으니  
자기 숲에 눈 쌓이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 리 없지만.

한 해 중에도 가장 어두운 날 밤중  
가까이 인가 없는 숲과 호수 사이에

---

10) *Ibid.*, p. 148.

내가 이렇게 서 있음을  
나의 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목에 달린 방울을 짚랑대는게  
왜 그러느냐고 묻는 것 같다.  
그밖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눈송이 날리는 바람소리뿐.

이 숲은 정녕 아름답구나! 어둡고 깊은 숲!  
그러나 나에겐 약속이 있어!  
자리에 들기 전에 십여리를 더 가야하리.  
자리에 들기 전에 십여리를 더 가야하리.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1-16)

프로스트가 이 시에서 눈 내리는 숲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쓰려고 한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후반부에서 분위기의 환기에 의해 알 수 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서 화자는 눈이 내리는 숲의 아름다움에 끌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 마일을 가야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숲은 이 시에서 마을과 화자가 서 있는 자리, 또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의 거리를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은 결국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자기 전에 몇 마일을 가야만 하는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인간의 의무가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이시에서 화자는 숲으로 들어가는 것의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 시에서 “잠”이란 시어는 인간이 죽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숲은 프로스트의 시에서 호기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숲은 인간들 사이의 미지의 세계와 성취 가능한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공포로 가득 찬 존재의 상징으로 보인다.<sup>11)</sup>

나그네가 숲가에서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평화로운 모습은 실은 그 안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게 복종하도록 유혹한다. 즉 시인은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이 가미되지 않은 아름다움은 진정한 것이 아니며 자연으로 도피함으로써, 즉 자연과의 수동적인 합일을 성취하여 얻는 평화는 황폐한 것이라는 시인의 메

---

11) Malcolm Cowley, “The Case Against Mr. Frost,” 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1962), p. 43.

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어둡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눈에 덮인 숲의 유혹은 바로 아름다움과 죽음의 유혹과도 같다. 화자는 잠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이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로 돌아가려한다. 숲은 그를 초대하는 것 같지만 그는 “ 지켜야할 약속”, “가야할 길” 과 같이 그가 잠들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자신의 삶에로의 약속과 헌신을 지키려 한다. 숲이 자신의 삶에서 힘든 것을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가 될지 모르나, 현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허용되는 것은 숲이 제공하는 깊이와 아름다움과 어두움에 대한 동경뿐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실제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가 살고 있는 실제 사이의 전반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그러한 감정들은 어떤 목적의식이기도 하고 무언가의 가치에 대한 직관 그리고 과학적인 도식(圖式, scheme)들이다. 프로스트의 자연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그의 과학적 도식을 얻고자하는 열망으로 명백히 드러난다.<sup>12)</sup>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과의 대립적 관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도 있다. 자연에 대해 이러한 양면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보인다. 그는 이 시에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에 취해있는 일보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연, 특히 숲이 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과 자연의 단절을 나타내는 시에는 「들어오시오」 (“Come In”)가 있다.

숲가에 다다르니

---

12) Lynen, p. 162.

쉬—! 티티새 우는 소리  
밖은 황혼이지만  
숲 속은 어두운 밤.

날개를 파닥이고  
잠자리를 고치기엔  
너무 어두웠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저버린 태양의  
마지막 한 줄기 빛이  
티티새의 가슴에서  
한 가닥의 노래를 뽑아냅니다.  
치솟은 나무숲의 어둠 속으로  
티티새의 노래가 퍼져갑니다.  
어둠과 슬픔 찾아  
들어오라는 듯이 —

하지만 별을 구경하러 나온 몸이니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렵니다.  
그런 청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설사 부탁을 한다 해도 안들어 가렵니다.

As I came to the edge of the woods,  
Thrush music—hark!  
Now if it was dusk outside,  
Inside it was dark.

Too dark in the woods for a bird  
By sleight of wing  
To better its perch for the night,



Though it still could sing.

The last of the light of the sun  
That had died in the west  
Still lived for one song more  
In a thrush's breast.  
Far in the pillared dark  
Thrush music went—  
Almost like a call to come in  
To the dark and lament.

But no, I was out for stars:  
I would not come in.  
I meant not even if asked,  
And I hadn't been.

(1-20)

이 시에서는 티티새의 노래가 들려오는 어두운 숲의 유혹을 받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두운 숲속으로 울려 퍼지는 티티새의 노래는 신비롭고 아름답다. 화자는 숲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 숲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적막하기도 하고 티티새가 잠자리도 옮길 수 없을 만큼 캄캄하기만 하다. 들리는 새소리며 머리카락 같은 나무 등에서도 자연은 어둡고도 압도하는 듯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어둠의 숲과 자신의 현실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는 숲과 떨어진 채 별을 보러 나온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본연의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 시에서 숲의 어둠과 깊이는 휴식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것은 숲이 인간에게 결코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유머러스한 어조로 현실에 머무를 것을 이야기한다. 숲을 통하여 프로스트는 처음에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점차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자연과 그 정경에 몰입해 현실을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태도는 프로스트가 시에서 인생의 여러 단면의 실제모습을 생생한 제시하면서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인식하려는 이원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와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호적인 면과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면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이 시에서 시인은 확실한 경계선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틈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하는 정경은 확실히 아름답지도 않고 활기찬 것도 아니다. 자연은 아주 인상적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를 표현하는 대조되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준다.<sup>13)</sup>

물론 인간과 자연과의 괴리는 존재한다. 프로스트는 자신의 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찾음으로써 그 괴리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고 잘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알게 되고 친숙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자연과의 괴리감을 없애고 상호 보완적인 대등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프로스트는 인간의 시선으로 가능한 멀리까지 바라보고 친숙하게 지내며 숲과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의 시에서 시인은 어두운

---

13) *Ibid.*, p. 147.

숲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어두운 숲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고서 다시 되돌아 올 만큼 충분히 깊고 멀지 않다는 것이다.<sup>14)</sup>

프로스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숲의 모습 중의 하나는 눈에 덮여 있거나 어둠에 싸여있는 숲이다. 이 숲들은 아름답고 매력을 지니는 한편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무상과 허무, 자아상실감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숲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사회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선뜻 들어가기 두려운 곳이기도 하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숲은 대개 어둡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지만 결국 사람과 쉽게 친해지거나 동화될 수 없는 대상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가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주된 관심은 인간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 그는 자연을 시의 소재로 선택했지만 그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대비시킴으로써 인생의 어떤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스트의 시에 있어서 그러한 초점은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괴리를 해소시키려는 인간의 끈질긴 인내와 용기 또는 투쟁정신을 보여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14) Gerber, p. 170.

## 2.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

프로스트의 시에는 갈등을 보여주는 시가 많다. 그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하여 한 개인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갈등은 반대되는 선한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한결 사실적인 비극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프로스트에게는 더욱 흥미 있는 소재이다. 「담장 고치기」(“Mending Wall”)는 이와 같은 종류의 갈등을 심도 있게 묘사한다.

무엇인가 담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놈이 담 아래 흙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담 위쪽에 놓인 돌들을 굴러 떨어지게 하거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든단 말이야.

.....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틈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봄철 담장 수리할 때면 나타나거든.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s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

The gaps I mean,  
No one has seen them made or heard them made,  
But at spring mending-time we find them there.

(1-11)

이 시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두 이웃 사이에 가로놓인 두꺼운 벽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극적 독백(dramatic monologue)의 형식을 취하면서 해학적이고 장난스런 어조로 쓰여진 이 시는 시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봄이 되어 과수원집 주인과 그 이웃인 솔밭 주인이 함께 그 담장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된다. 봄만 되면 어김없이 담장이 무너져 그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무너진 틈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담장이 무너진 원인 중에는 인위적인 것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어떤 것 (something)”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것이란 아마도 자연에 인간이 가하는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질서의 원칙과도 같은 의인법적인 것이다.<sup>15)</sup>

자연은 조화로운 세계인데 인간이 자연에 경계를 긋는 담장을 쌓게 되자 자연의 어떤 법칙이 이를 싫어하여 담장을 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가 둥근 돌로 담장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담장 쌓는 일을 일종의 유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장을 쌓아가는 도중에 화자에게 어떤 의문이 들게 된다.

저쪽은 몽땅 소나무 숲이고 이쪽은 사과밭이니  
담이란 것이 도무지 필요 없는 곳이 나옵니다.

15) Elaine Barry, *Robert Frost* (New York: Frederik Unger Publishing Co., 1973), p. 110.

내 사과나무가 담을 넘어가서 당신의 술방울을  
따 먹지는 않을 거라고 그에게 말하면, 그는 그저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There where it is we do not need the wall:  
He is all pine and I am apple orchard.  
My apple trees will never get across  
And eat the cones under his pines, I tell him  
He only says,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23-27)

담장을 경계로 하여 이웃 사람의 땅은 소나무 밭이고 화자의 땅은 사과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담장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이웃 사람에게 담장이 필요 없음을 유머러스하게 말하지만 이에 대하여 그 이웃 사람은 예부터 전해오는 말로 대꾸할 뿐이다. 즉 튼튼한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드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 두 이웃사이에는 통과할 수 없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습관과 전통, 교육 그리고 환경에 의해 확고하게 굳혀진 또 다른 벽이 존재한다. 술밭의 주인인 이웃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 사과나무 과수원의 주인인 화자는 “무엇인지 담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담을 무너뜨리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sup>16)</sup>

이처럼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사이의 장벽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단절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배경과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

16) Gerber, p. 147.

노력으로 승화, 극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좌절하며 포기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는 둘 사이의 장벽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의 후반부에서 결국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이웃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 이웃의 생각과 태도도 확고부동하므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마음의 벽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이 작품에서 프로스트는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사교환도 불가능하다는 인간 상호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시에서의 담장은 인간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표시하고 보호하는 실용적인 사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항하는 인간의 의지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이에 맞서려는 인간의 의지와의 갈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꺼져라, 꺼져라—」(“Out, Out—”)는 한 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소재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도처에 내재해 있는 것을 보여주며 분위기가 시의 전반부와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이 시의 결말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글쎄. 허나 그 손은 이미 사라졌는걸!  
의사는 그를 에테르의 어둠 속으로 보냈다.  
그는 누워서 거칠게 숨을 내뿜었다.  
그러지 그의 맥을 짚던 이가 놀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슴에 귀를 댔다.  
작아지고—희미해지고—끊어졌다. 그만이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각자 제 볼 일로 돌아갔다.

So. But the hand was gone already.  
The doctor put him in the dark of ether.  
He lay and puffed his lips out with his breath.  
And then—the watcher at his pulse took fright.  
No one believed. They listened at his heart.  
Little—less—nothing!—and that ended it.  
No more to build on there. And they, since they  
Were not the one dead, turned to their affairs.

(27-34)

소년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은 잘려나가고, 의사가 노력한 보람도 없이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심장이 멎고 만다. 소년이 숨을 거두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일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다. 이것이 삶의 현실이며 인간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이웃의 무관심과 그 냉정함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콕스(Sidney Cox)는 이처럼 주변에 비극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항상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잃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화자는 깊고 어두운 절망으로 빠져들었다가 현실에 사는 우리들이 프로스트의 시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에서 역류하는 하얀 물결과 같이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게되면서 현실로 돌아온다.<sup>17)</sup>

소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정이 역력하게 흐르면서도 그 너머의 인생을

---

17) Sidney Cox, *A Swinger of Birches: A Portrait of Robert Fros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7), p. 36.



바라보는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보여주듯이 통렬함이 느껴지는 말로 냉혹한 삶을 직시한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분노는 사회성을 띠기 전에 인생에 대한 체념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같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은 이미 내재해 있으므로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인간의 의무인 노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노동을 노래한 시 중에서 위의 「꺼져라, 꺼져라—」는 아주 특이한 시에 속하며 노동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시는 그 내용이 노동에 대한 애정과 노동의 필요성, 유희와 동일시되는 노동의 즐거움, 노동 후에 찾아올 결과에 대한 꿈, 취미적인 것과 직업적인 노동의 양면성 등 다양하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간에도 상호 이해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작은 묘」(“Home Burial”)에서는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아이의 죽음을 계기로 증폭되고 결국 폭발한다.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삭이지 못하고 애를 끊이는 아내와 아이의 죽음을 하나의 엄연한 과거의 사실로 넘기고 평상의 생활을 꾸려가고자 애쓰는 남편의 태도가 맞부딪친다. 아이를 잃은 후 틈만 나면 집 안에 있는 그 아이의 묘지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에 넋이 나가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 하기는 커녕 도대체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눈치 채지 못하다가 늦게 서야 알게 된다.

“왜 내가 금방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제까지 한 번도 이곳에서 저게 눈에 띈 적이 없었거든.

아마 습성이 되어 무심해졌기 때문일 거야.

우리 혈육이 묻혀있는 작은 묘지!

너무 작아서 창문 테두리 안에 몽땅 들어가네.

아마 침실 크기만 할까? 그렇지?  
석판 비석이 셋, 대리석이 하나  
저 언덕에 널판들이 햇빛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  
이제는 알겠어. 저 비석들이 문제가 아니지.  
저기 있는 애기의 무덤이—”

“그만! 그만! 그만!  
그만뒤요!” 아내는 외쳤다.

“The wonder is I didn't see at once.  
I never noticed it from here before.  
I must be wonted to it—that's the reason.  
The little graveyard where my people are!  
So small the window frames the whole of it.  
Not so much larger than a bedroom, is it?  
There are three stones of slate and one of marble.  
Broad-shouldered little slabs there in the sunlight  
On the sidehill. We haven't to mind *those*.  
But I understand: it is not the stones,  
But the child's mound—”

“Don't, don't, don't,  
don't,” she cried.

(20-32)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오직 자식의 무덤만이 눈에 보일 아내에게 남편은 가족묘지에 있는 무덤의 수와 무덤의 크기를 말한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자 아내는 절규하듯 “그만해” 라고 외친다.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내면서 어디론가 떠나려 하자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남편은 여자와 있으면 할 말도 못하고 특히 자신은 말주변이 없어 아내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는 바보라며, 자기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하며 아내가 가르쳐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다(45-47). 그러면서도 둘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약정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한다(50-51). 하지만 현실적이고도 이성적인 남편은 감상적인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남편이 하는 말과 행위는 장난처럼 보이고 아내는 오히려 반감을 갖는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 손으로 그 애의 작은 묘를 팠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어쩌면—  
.....  
당신은 일상적인 지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은 현관 옆의 벽에 기대 놓았지요.  
난 알아요. 이 눈으로 봤으니까요.”

“You can't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speak.  
If you had any feelings, you that dug  
With your own hand—how could you?—his little grave;  
.....  
And talk about your everyday concerns.  
You had stood the spade up against the wall  
Outside there in the entry, for I saw it.”

(71-88)

아내는 아이의 장례식 날 있었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묻을 무덤을, 마치 무 구덩이를 파듯이, 그토록 태연하고도 경쾌한 동작으로 팔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무덤을 파던 그 복장 그대로 들어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내는 남편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남편의 권유나 달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서로가 자신의 벽을 넘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남편의 노력도 허사로 끝나고 둘 사이에 마음의 벽은 높아만 가고 아내의 슬픔은 더해만 간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의 이해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슬픔의 정도와 슬픔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서로 다른 법이다.

남편에게, 그것은 커다란 슬픔이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내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슬픔이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이다. 남편은 슬픔을 짓누르고 일상사를 통해 극복한다. 아내는 슬픔에 빠져 일상을 도외시한다.<sup>18)</sup>

남편은 커다란 슬픔이 있어도 생활하지만 아내는 커다란 슬픔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은 슬픔을 숨긴 채 자신의 생활을 일상적인 일로 채우지만 아내는 자신의 슬픔을 모든 것에 반영해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도 그녀의 슬픔을 반영시키고 있다. 즉 아내는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여는 결국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 그들 사이에 장벽을 쌓아올리는 것은 바로 아내인 것이다.

---

18) John Robert Jr. Doyle,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62), p. 38.

남편은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녀가 왜 그렇게도 슬퍼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아내가 그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작은 묘」에서의 젊은 여자는 자신의 몫을 획득하려다 실패하여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삶이 산산조각 나면 인간은 그 파편들을 모두 끌어 모아야만 한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마음의 어둠은 끝내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sup>19)</sup>

거버는 이 시에서 아내와 남편의 불화가 시인이 의도한 이성을 잃는 첫 단계라고 전제하고 여자를 이성을 잃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상태를 찾지 못하며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부서진 삶의 파편들을 함께 맞추어야 하는 인간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시사한다.

“그래요. 죽을병이 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혼자예요. 죽을 땐 더 그렇죠.  
그 사람의 친구들은 묘지로 따라가는 시늉을 하지요.  
그러나 죽은 이가 미처 땅 속에 묻히기도 전에  
벌써 그들의 마음은 딴 데 가있고  
되도록 빨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날그날의 살림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은 나빠요.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

19) Phillip L. Gerber, *Twayne's Series- Robert Frost* (Boston: Twaynes Publishers, 1982), p. 121.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No, from the time when one is sick to death,  
One is alone, and he dies more alone.  
Friends make pretense of following to the grave,  
But before one is in it, their minds are turned  
And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  
And living people, and things they understand.  
But world's evil. I won't have grief so  
If I can change it. Oh, I won't, I won't!”

(100-107)

아내는 자신의 남편까지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를 확대해서 일반화시키면 결국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혼자’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단절의식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특히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벽을 쌓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 외로움은 반드시 환경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며, 결국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프로스트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꾼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고뇌를 야기함을 노래한다. 이 시에서는 과거에 자기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노인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집에 다시 나타난 사건에 대해 부부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이다. 이 시에서는 노동이라는 특기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일러스(Silas)가 노동력을 상실한 노년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외롭게 죽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트

는 이 시를 통해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이해의 과정,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다 고독하게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렌(Warren)의 고용인이었던 사일러스는 젊을 때 한창 바쁘던 여름철에 어떤 사람에게 유혹당하여 떠났다가 늙어서 일할 능력이 상실된 후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메리(Mary)는 사일러스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온 워렌에게 미리 마중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나 워렌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늙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다(15-16). 그러나 메리는 사일러스가 이제 달라졌으며 그가 건초더미를 수레에 잘 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워렌을 설득한다. 그리고 사일러스가 인생의 종착점에 온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사일러스의 과거 행동들을 힐난하면서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워렌은 계속해서 사일러스를 헐뜯는다. 그래도 부인 메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일러스가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데 대해 동정을 하는 한편 고맙기까지 하다.

그녀는 사일러스가 어느 때와는 달리 죽음을 맞으러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하자 남편은 버럭 역정을 내면서 빈정거린다.

“집?” 그는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반문했다.

“그럼요. 집이죠.

집이 따로 있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물론 그와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서

우리 집에 찾아든

낮선 개와도 같이.”

“아무 때나 돌아가면 별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 곳이

집이란 말이지?”

“집이란 곳은 원래 그런 곳 아니에요?  
돌아갈 자격을 따지지 않는 곳이니까요.”

“Home,” he mocked gently.

“Yes, what else but home?”

It all depends on what you mean by home.

Of course he's nothing to us, any more

Than was the hound that came a stranger to us

Out of the woods, worn out upon the trail.”

“Home is the place where, when you have to go there,  
They have to take you in.”

“I shouldn't have called it  
Something you somehow haven't to deserve.”

(112-120)

위의 내용에서 메리가 말하는 것은 프로스트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집이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쉬는 곳이니, 집에 돌아오는 데에는 꼭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집에 대한 메리의 현실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집에 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내의 설득에 못이겨 사일러스를 데리러 간 남편은 헛간 문 앞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는 사일러스를 발견하게 된다. 시의 끝에서 사일러스가 죽음으로써 남편 위렌의 태도는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나 그의 사일러스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냉정하여 아내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그린다.



하지만 프로스트는 단지 갈등 그 자체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시의 끝에 비록 사일러스는 죽었지만 워렌은 인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져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당성만을 강조하던 워렌의 경직된 인생관이 따스한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메리에 의하여 점점 부드러워져 그의 인생관이 영향을 받고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름이 달에 부딪혔다.

그렇게 되니까 그 셋이 어렴풋이 일선을긋게 된 셈이다.

달과 은빛 구름과, 그 여인이.

워렌이 돌아왔다.—너무 일찍 돌아온 느낌이 든다.—

아내 옆에 앉으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는 기다린다.

“왜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죽었어.” 하고 그는 대답했다.

It hit the moon.

Then there were three there, making a dim row,

The moon, the little silver cloud, and she.

Warren returned—too soon, it seemed to her—

Slipped to her side, caught up her hand and waited.

“Warren?” she questioned.

“Dead,” was all he answered.

(162-167)

위의 마지막 부분에서 워렌이 ‘죽었다’고 말하는 장면은 사일러스가 혼자 죽어간 것을 현대인의 고독에 비유하여 현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현실에서의 안주(安住)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닌 삶의 끔찍한 실재(實在)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매우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프로스트를 공포의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쉽게는 그를 비극적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사일러스를 두고 벌이는 부부간의 언쟁과 갈등은, 한 노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었지만, 더욱 흥미있는 것은 사일러스를 통해 프로스트가 제시하고자 했던 한 노인의 고독과 비극이 이 시 속에는 잘 나타나있다. 또한 두 부부의 갈등에서처럼 프로스트가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치관, 삶의 방식, 바람 그리고 그가 처해있는 환경 등이 다르고, 또 인간의 본성도 선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 온전한 일치와 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인은 본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개의 시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일상적이지만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며 고통을 받고 있다. 프로스트는 개인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료 사이에서, 부부사이에서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에서 또 생계유지를 위한 지나친 노동의 과정에서 인간의 고독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프로스트가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는 이유는 현실의 직면과 인식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는 냉혹한 현실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고독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한다.

---

20) Lionel Trilling, "A Speech on Robert Frost: A Cultural Episode," in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56.

### 3. 이상과 현실의 갈등

인간이 자연이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립과 갈등도 물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간 자신의 존재 및 사물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선택을 앞두고 겪게 되는 고뇌와 갈등 또한 존재한다.

「어둠 속의 문」(“The Door in the Dark”)은 정신적 방황 끝에 겪게 되는 고뇌를 훌륭하게 담아낸다.

어둠 속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더듬어 갈 때  
손을 내뻗어 얼굴을 가린다고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엮어 팔로 둥그렇게 감싸는 걸  
깜빡 잊고 말았지요.  
그 사이에 날씬 문이 방어선을 뚫고서  
어떻게 비유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세계 내 머리를 때렸답니다.  
예전과는 달라서 이젠  
사람과 사물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답니다.

In going from room to room in the dark  
I reached out blindly to save my face,  
But neglected, however lightly, to lace  
My fingers and close my arms in an arc.  
A slim door got in past my guard,  
And hit me a blow in the head so hard  
I had my native simile jarred.  
So people and things don't pair anymore  
With what they used to pair with before.

(1-9)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한 인간의 정신적 방황을 화자가 마주한 우연한 자연적 사실과 더불어 보여준다. 이 시에서도 또한 주된 정서는 어둡이고 정신적 방황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첫 행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사람과 사물들이 이제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로 정신적 방황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여운을 남긴다. 이것은 그 고독이 끝이 없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방어도 소용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 또는 문제점에 이르게 되고 이에 대한 물리적인 방어는 소용이 없으며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는 프로스트의 비극적 인생관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프로스트는 「나의 소망」(“Into My Own”)에서 인생과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 한가지 소망은, 해묵고 단단하며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시피한 저 검은 나무들이  
우울의 가면을 걸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종말까지 뻗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어느 때엔가 저 광막(廣漠)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리.  
공터라든지, 모래를 떨어 뜨리며 느리게 굴러가는  
차바퀴 다니는 행길을 만날 염려없이

One of my wishes is that those dark trees,  
So old and firm they scarcely show the breeze,  
Were not, as 'twere, the merest mask of gloom,  
But stretched away unto the edge of doom.

I should not be withheld but that some day  
Into their vastness I should steal away,  
Fearless of ever finding open land,  
Or highway where the slow wheel pours the sand.  
(1-8)

이 시에서 화자는 현실생활에서의 고달픔을 털어 버리고 끝없이 펼쳐진 숲속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숲이 오래되고 우거져서 바람 한 점 없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고달픈 현실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또한 부디 그 숲이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 영원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제 2연에서는 현실의 삶을 상징하는 “공터”나 “행길”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다시는 숲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가 인간들을 철저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갈등을 보이고 있다.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겠지.  
나를 못 잊어하고, 아직도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간 길을 뒤쫓아 오면 될 것이기에

그들은 내가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소신(所信)이 더욱 확고해진 것 외에는.

I do not see why I should e'er turn back,  
Of those should not set forth upon my track  
To overtake me, who should miss me here  
And long to know if still I held them dear.

They would not find me changed from him they knew—  
Only more sure of all I thought was true.

(9-14)

제 1, 2 연에서는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고달프지만 현실의 삶을 온전히 등질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 자신은 현실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 시에서는 화자가 현실의 삶과 그 현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선택 앞에서 심한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거대한 어둠의 숲으로의 여행은 내면의 영역으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즉, 인간 내부의 광활한 어둠속으로의 여행인데 이것을 통해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함을 깨닫게 된다.<sup>21)</sup>

결국 이 시는 숲을 미지의 상징으로 보며 인생을 탐색의 여정으로 파악한다. 또 ‘나’와 ‘타인’의 관계를 공통적인 인간 조건에서 긍정하고 있다. 인간은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전체와 부분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의 필연성에 대한 고뇌를 이 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가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세밀한 심리묘사를 통하여 인생에서 선택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가보지 못한 길」(“The Road Not Taken”)이 있다.

---

21) Frank Lentricchia, *Robert Frost: Modern Poetics and the Landscape of Self*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75), p. 26.

단풍진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지요,  
두 길을 다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한 나그네의 몸이라  
덤불 속으로 굽어 들어간 한쪽 길을  
아쉬운 마음으로 오래오래 보고 있었습니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길을 택했지요. 두 길이 모두,  
아름다웠지만 그 길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겠지요,  
그 길은 풀이 더 푸르고, 내 발길을 기다리는 듯;  
발자국도 안 난 채 낙엽에 덮여 있었지요.  
하기사 두 길이 거의 엇비슷한 상태였지만요.

더구나 그 날 아침에는 두 길이 같은 모양으로  
흰서리 위에 발자국하나 나 있지 않았었지요.  
야! 나는 후일을 기약하고 한 갈래 길을 남겨 놓았지요!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난 어디선가  
한숨지으며 말 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라고.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1-20)

이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길”은 사람의 인생과정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숲에 난 길이라는 가시적인 길은 인생에서 걸어온 길이라는 추상적인 길의 의미를 포함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마음속으로 두 길을 가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에 망설이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함을 프로스트는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에서 보여준다.

또한 프로스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직업 선택의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꾸준히 시를 지으면서 경영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프로스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인생의 해명을 인생에서 마주치는 선택의 문제와 선택하지 않은 인생행로의 아쉬움과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 시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프로스트가 인생을 얼마나 통찰력 있게 바라보았는지도 알게 해준다.

프로스트는 선택이라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이미 행하여진 선택, 앞으로 내려야할 선택, 혹은 내려야만 하는 선택,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선택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시를 썼다. 그것은 또한 물론 그러한 선택의 행위들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삶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sup>22)</sup>

그러나 어떤 현상에 대하여 뚜렷한 견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프로스트의 태도를 두고 윈터스(Yvor Winters)와 같은 비평가들은 프로스트가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갖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시를 썼다는 혹평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지 못한 길」은 정신적 배회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시이다. 그리고 정신적 배회자는 주요한 시인이 될 수 있는 지성과 힘 두 가지 중 하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sup>23)</sup>

22) George W. Nitchie, *Human Values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60), pp. 157-158.

23) Yvor Winters, "Robert Frost: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in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4.

원터스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지 못한 길」을 통하여 프로스트가 뚜렷한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적 배회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시를 쓰고자 했던 프로스트는 삶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진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프로스트가 독자적인 철학 체제가 없다가 보다는 어떤 현상을 보는 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상의 신비라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만일 그 무엇이 분명하게 밝혀졌을 경우, 이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주의는 프로스트가 어떤 대상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며 역설적으로 더욱 심화된 사색과 명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Ⅲ. 고뇌 극복의 형태

프로스트는 자신의 시론인 「시의 형상」(“The Figure a Poem Makes”)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는 어떻게든지 그 자체가 어떤 즐거움을 말해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시는 형상을 만들어 낸다.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 그 형상은 사랑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도 환희가 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충동을 지향하고, 쓰여진 첫 행에서 방향을 잡은 후 다행스런 사건들의 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인생의 해명으로 끝난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종파나 학파에 근거를 둔 위대한 해명은 아니라하더라도 최소한 혼란에 맞서는 일시적 지주는 될 수 있다.<sup>24)</sup>

프로스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을 혼란으로 파악했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삶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일을 시인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무질서하고 종교적 믿음이 사라진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러한 혼란을 받아들이지만 질서와 균형이 잡힌 세계로 향하고 싶은 의도를 보여준다. 시의 목적을 인생에 대한 해명으로 삼고 있는 프로스트는 우주 속의 불가시적 존재인 절대자 또는 신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술 대신 자연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 점에 관하여 프로스트의 시적 사상은 동시대의 많은 시인들처럼 신의 출현이나 신비적 비전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

24) Hyde Cox & Edward Connery Lathem, ed., “The Figure a Poem Makes,” in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 18.

정하는 실존주의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한계성에 유의하며 세상은 선과 악, 승리와 패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고뇌의 양상 중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보여주는 시로 살펴보았던 「작은 묘」(“Home Burial”)에서 고뇌 극복의 방안을 알 수 있다. 브라워(Reuen A. Brower)의 견해에서 프로스트의 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인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의 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남편의 정의와 부인의 자비에 관한 드라마이자 그 이상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뿌리 깊은 요구인 남편의 위엄에 대항할 때 두 개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시의 진수는 자비가 정의를 조절하여 화해와 자비로 이끄는 데 있다.<sup>25)</sup>

이처럼 프로스트는 시에 등장하는 인물인 메리로 대변되는 자비의 가치와 워렌이 상징하는 정의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해소된다고 말한다. 즉 그가 제시하는 갈등과 고뇌의 양상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극복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작나무」(“Birches”)는 「나의 소망」(“Into My Own”)과 「가지 못한 길」(“The Road Not Taken”)보다 시각적 묘사가 더욱 치밀하며 인생에 대한 명상이 긴 호흡과 사실적인 세부 사항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시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곳곳하고 검푸른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숲길 사이에 휘어져 있는 자작나무에 대한 자연 묘사이고, 둘째 부분은 자작나무를 타서 휘게 만든 소년의 생활에 대한 묘사이며, 마지막 부분은 자작나무를 타던 소년과 연관 지어 시속에 나타

25) Reuen A. Brower,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162.

난 화자가 인생과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언급하는 말로 되어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사용된 자작나무라는 자연적 대상의 메타포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해한다면 이 시가 전해주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창으로 해서 그의 시세계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나무를 타던 소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걱정이 많아지고, 인생살이가  
길 없는 숲 속을 헤맬 때  
얼굴에 거미줄이 얽혀서 따끔거리고  
튀겨진 나뭇가지에 한쪽 눈을 얻어맞아  
눈물이 나올 때와 너무나 흡사하게 느껴질 때면  
더욱 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자작나무 타듯이 인생살이를 하고 싶다.  
검은 가지를 타고 눈처럼 흰 줄기를 올라가  
하늘로 향하다가 나무가 더 이상 건디지 못해  
머리 숙여 나를 다시 내려놓을 때 까지.

So was I once myself a swinger of birches.  
And so I dream of going back to be.  
It's when I'm weary of considerations,  
And life is too much like a pathless wood  
Where your face burns and tickles with the cobwebs  
Broken across it, and one eye is weeping  
From a twig's having lashed across it open.  
I'd like to get away from earth awhile  
.....

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  
I'd like to go by climbing a birch tree,  
And climb black branches up a snow-white trunk  
Toward Heaven, till the tree could bear no more,  
But dipped its top and set me down again.

(41-57)

이 시속에 나타난 자작나무를 인생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하늘의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눈보라와 얼음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속세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얼음의 오색 빛이 상징하듯 인간이면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안식과 평화가 깃든 영원의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자작나무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상세계를 향한 비상을 의미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현실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혹시나 운명이 자신의 바람을 잘못 받아들여 지상에서 멀리 데려간 후 다시 지상의 세계로 데려오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즉, 이상세계를 향한 화자의 바람은 간절하지만 이것은 지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꾸러가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나 휴식이지 영원히 현실세계를 떠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화자는 “이 세상은 사랑의 터전!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지 나는 모른다(53).” 라고 말함으로써 결코 땅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지구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천당이 지옥보다는 낫겠지만 이 지상의 세계만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sup>26)</sup>

---

26) Lawrance Thomson, ed.,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p. 414.

이 시에서 화자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픈 마음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 땅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다음의 프로스트의 말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삶의 해명을 구하고자 한 시로는 현실세계의 고된 노동을 잊고 천국이 라는 이미지를 결부시킨 「사과 따기를 마친 후에」(“After Apple-Picking”)가 있다.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인간이 현세에서 행하는 성실한 삶이 내세에 가서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신념으로 지상에서의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이 시를 통해 보여준다.

내 긴 사닥다리의 두 끝은 여전히 나무 사이로  
하늘을 향해 뻗어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채우지 않은  
통 하나가 있고 어느 가지에는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두 세 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과 따는 것을 끝냈다.

My long two-pointed ladder's sticking through a tree  
Toward heaven still,  
And there's a barrel that I didn't fill  
Beside it, and there may be two or three  
Apples I didn't pick upon some bough.  
But I am done with apple-picking now.

(1-6)

이 시에는 노동 행위를 통한 기쁨과 성취의 꿈이 나타나 있다. 늦가을 사

과 따기를 마치고 휴식의 초겨울을 맞이한 농부가 피로 속에서도 수확의 기쁨으로 사과 따기의 구체적인 노동 행위를 회상한다. 그 속에는 피로감이 있는 반면 즐거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서 그 감사의 기분은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된 감정이며 이 감정은 자연 속에서 얻은 인간의 소득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과 감사라기보다 경험의 반추, 또는 정심적인 생활이 이상이 추구되어 진다.

사과를 따기 위해 세워놓은 사다리는 아직도 하늘을 향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통이 있고 나무에는 한두 개의 사과가 매달려있지만 이제 농부는 하루 일을 마감한다. 사과를 따기 위해 세워놓은 사다리가 천국을 향하고 있으며 여기서 천국은 인간이 지상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 선악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는 곳,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고장을 뜻하는 것으로 하루의 노동 후 만족스런 마음으로 밤의 안식을 맞이하는 곳이다. 이제 농부는 잠으로 빠져 든다.

겨울잠의 정수는 밤에 사과의 향기에  
깃들어 있다.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Essence of winter sleep is on the night,  
The scent of apples: I am drowsing off.

(7-8)

인간 활동이 완전히 끝나고 자연의 숨소리만 들리는 근원적인 상태의 겨울잠 속으로 빠져드는 농부의 코에는 고된 노동 뒤에 풍겨오는 쾌락의 사과 향기가 가득하다. 사과 따기를 마친 농촌은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와 평화와 감사와 축복의 분위기가 감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부는 잠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눈



앞에 어른거리는 현실적인 일들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가 성취한 것이 꿈속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커다랗게 확대된 사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줄기 끝과 꽃의 끝과  
그리고 모든 적갈색 반점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내 발바닥 안쪽은 사다리 디딤대의 아픔뿐만 아니라  
압력도 간직하고 있다.  
나는 가지가 구부러질 때 마다 사다리가 휘청거림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하실 저장창고에서  
수많은 사과들의 구르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

Magnified apples appear and disappear,  
Stem end and blossom end,  
And every fleck of russet showing clear.  
My instep arch not only keeps the ache,  
It keeps the pressure of a ladder-round.  
I feel the ladder sway as the boughs bend.  
And I keep hearing from the cellar bin  
The rumbling sound  
Of load on load of apples coming in.

(18-26)

힘든 노동을 하고 난 후 얻은 사과 수확의 기쁨을 주었고 그 기쁨의 향기에 도취된 그때에 낮 동안의 일이 꿈속에서 미화되어 나타난다. 확대된 사과, 가지 끝, 모든 뚜렷한 적갈색 반점은 실제 사과의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게 묘사된다. 발바닥의 통증과 사다리의 압력을 느끼나 실제의 고통이 아닌 꿈의 고통으로 지하실 창고로 들어오는 사과의 쿵쿵거리는 소리와 대조를 이뤄 수확의 기쁨으로 배가시키고 있다.

낮에 한 노동의 대가가 너무나 막중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보람이 눈앞에 보여 일 년 동안 갈망해 오던 수확의 기쁨이 현실화되니 과로했다는 생각이 난다. 이러한 꿈과 연결해서 인간의 잠과 들쥐의 잠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잠은 노동으로부터 휴식,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 잠이 어떤 잠이든 간에 그 잠을 무엇이 괴롭힐지를.

들쥐가 아직 땅속으로 가지 않고 있었다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묘사하는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잠이

그의 긴 잠과 같은 것인지 단지 인간의 어떤 잠일 뿐인지를.

One can see what will trouble

This sleep of mine, whatever sleep it is.

Were he not gone,

The woodchuck could say whether it's like his

Long sleep, as I describe its coming on,

Or just some human sleep.

(37-42)

들쥐의 잠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동면을 취하는 꿈도, 괴로움도 없는 본능의 잠이지만 인간의 잠은 현실의 일들이 그대로 재생되는 꿈이 있고 노동의 피곤함이 남아 있어 고통 받는 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은 들쥐와는 달리 성취에 대한 기쁨과 보람의 연장을 포함하는 휴식인 것이다.

불가능한 꿈을 지니고 인간은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어떤 구원도 보답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고뇌의 상황으로부터 인간

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sup>27)</sup>

프로스트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자연과 노동이 상징하는 바를 인간에 적용시켜 인생의 의미를 시에 담았다. 지상은 인간 삶의 현장이고 이 지상에서의 삶의 사랑은 노동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노동의 기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프로스트의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시 분야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도 좋아하시지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고독한 학자인 적이 없었고 항상 땅을 사랑했습니다.”<sup>28)</sup>

프로스트에게 시를 짓는 것은 노동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이고,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시를 쓰는 일은 시인의 정화된 정서에 의한 예술적 창조이며, 이와 같은 창조의 행위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삶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뚜렷한 실체로 파악하고 노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위의 시를 통해 인간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 노동의 결실과 합쳐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인간은 고독한 상황을 극복하고 활

27) Gerber, *Robert Frost*. p. 146.

28) Edward Connery Lathem,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Inc., 1997), p. 285.

기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인간의 삶의 의의를 바로 지상의 노동과 성취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가 「한 떨기의 꽃」(“The Tuft of Flowers”)이다. 이 시는 노동의 의의를 파악하면서 노동을 통해 소외와 고독감을 극복하고 인간 화합을 이루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길을 가버렸고  
그가 혼자였던 것처럼 나도 혼자였다.

.....

그러자 나는 주위에 깨어나는 새 소리를 듣게 되고  
땅에 속삭이는 그 사람의 긴 낫 소리도 듣게 되고

나와 비슷한 그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부터의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But he had gone his way, the grass all mown,  
And I must be, as he had been—alone,

.....

That made me hear the wakening birds around,  
And hear his long scythe whispering to the ground,

And feel a spirit kindred to my own;  
So that henceforth I worked no more alone;

(7-34)

화자는 자기보다 먼저 풀을 다 베고 사라진 사람을 생각하며 혼자 남아 일하는 것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것이 노동의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풀 베는 이가 베지 않고 남겨둔 개울가의 꽃 덩불을 보고 감동하게 되며 그 때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써 속마음을 알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사람과 감각적 기쁨을 공유하게 되고 노동의 의의를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된다. 동시에,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화자는 인간은 개별적이고 외로운 존재지만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의식을 공유한 집합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혼자 일하면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통해 노동은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뉴먼(Lea Newman)은 프로스트가 그의 시의 주제를 밝히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 시의 주제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바 있다고 말한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이죠.” 라고 그는 설명했다. 농부로서의 고독한 삶과 관련하여 볼 때, 그는 사람들로 부터 떠났다. 그러나 「한 떨기의 꽃」에서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로 돌아왔다.<sup>29)</sup>

함께 일하는 것과 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그는 고독한 농부로서는 혼자였지만 이 시에서 8행의 “혼자” 라는 시어를 36행의 “더 이상은 혼자의 일이 아니었다” , 41행의 “함께” 로 바꾸어 반복함으로써 시 속에서 말로써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통해 실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즉 시를 짓는 일로서 사람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시는 다른 사람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교감을 나누며 하는 노동은 고독한 인간조건을 극복하게 하며 인간의 화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 라고 한 프로스트의 시론에 가장 부합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

29) Lea Newman,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The New England Press, 2000), p. 13.

다.

「진흙 더미의 두 뜨내기 일꾼」(“Two Tramps in Mud Time”)에서도 노동을 통해 인간 고뇌의 극복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는 노동의 즐거움과 필요성의 메타포를 통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상반된 입장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준다. 시에서 화자는 장작 패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중 한 사람이 세계 치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화자는 그만 헛치고 만다. 화자는 나무꾼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돈을 바라고 장작 패는 일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흙길로부터 두 이방인이 다가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나를 보고는  
그들 중 하나가 “세계 치쇼!” 라고 활달하게 외쳐서  
내가 내 표적을 놓치도록 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 그가 뒤에 처지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가게 했나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그는 나의 일을 샅을 받고 하길 원하였다.

Out of the mud two strangers came  
And caught me splitting wood in the yard.  
And one of them put me off my aim  
By hailing cheerily “Hit them hard!”  
I knew pretty well why he dropped behind  
And let the other go on a way.  
I knew pretty well what he had in mind;  
He wanted to take my job for pay.

(1-8)

이 시에서도 인간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는 객관화되고 양면성을 지닌 자연의 모습이 인간 고뇌의 원인으로 나타나 있다.

햇빛비치는 따뜻한 5월의 중순으로 느껴지는 4월의 날씨가 그 다음 순간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두 달을 뒤로 가서 3월 중순이 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급변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단절되는 것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간 고뇌의 원인이 되는 모습은 이 시의 5연에도 나타난다.

여름철이면 마술지팡이로나  
찾아야 할 물이  
모든 바퀴 자국마다 나를 이루고  
모든 발자국을 못으로 만들었다.  
물을 보고 반겨도 좋지만  
해만 지고나면, 땅 밑에 숨어있던 서리가  
살그머니 고개를 들고는 물 위에다  
그 수정 같은 이빨을 내민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The water for which we may have to look  
In summertime with a witching wand,  
In every wheelrut's now a brook,  
In every print of a hoof a pond.  
Be glad of water, but don't forget  
The lurking frost in the earth beneath  
That will steal forth after the sun is set  
And show on the water its crystal teeth.

(33-40)

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인간이 맞설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며 냉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명의 원천인 물과 생명을 위협하는 서리가 대조되는 가운데 인생을 즐기면서도 인간에게 소명인 노동의 양면성이 함께 제시된다. 즉 인간의 노동 역시 자연에 거스르지 못하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양면성을 떨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즐기는 장작 패는 노동을 내어 주고 싶지 않음을 은근히 말하며 노동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내가 일을 가장 즐기는 때에  
두 사람이 와 이런 요구를 하니  
내가 그 일을 더 좋아함은 당연할밖에.  
내가 전에는 못 느꼈다고 당신은 생각하리.  
높이 쳐든 도끼 대가리의 무게를  
활짝 펴 땅바닥에 짝 붙인 다리를.  
봄의 열기 속에 매끈하고 축축한  
부드럽게 흔들리는 근육의 활기를.

The time when most I loved my task  
These two must make me love it more  
By coming with what they came to ask.  
You'd think I never had felt before  
The weight of an ax-head poised aloft,  
The grip on earth of outspread feet.  
The lift of muscles rocking soft  
And smooth and moist in vernal heat.

(41-48)



봄의 열기 속에서 장작 패는 일을 즐기고 있을 때 뜨내기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장작 패는 일을 넘길 것을 암시하자 하는 일이 더욱 즐거워진다.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근육의 모습에서 화자가 가지는 노동의 즐거움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꾼들은 도끼 다루는 법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므로 화자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장작 패는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자는 남의 돈벌이 일을 마지막 연에서 좋아서 하는 일과 필요로 하는 일이 공존하는 노동의 양면성에서 생활의 수단이 되는 노동의 우선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동의 참다운 의미를 생각한다.

양자의 분리를 인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 삶의 목표는 취미와 직업을  
내 두 눈이 합쳐져 한 시력을 이루듯이.  
결합시키는 일이다.  
즐기는 일과 필요가 하나가 될 때만,  
일이 대단한 이해관계를 위한 놀이일 때만,  
그 행위는 진정 행해진다.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But yield who will to their separation,  
My object in living is to unite  
My avocation and my vocation  
As my two eyes make one in sight.  
Only where love and need are one,  
And the work is play for mortal stakes,

Is the deed ever really done  
For Heaven and the future's sakes.

(65-72)

화자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취미와 직업, 즐기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합일시키는 것으로서 사랑과 필요가 하나가 되고 노동이 즐거운 유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기쁨과 결실, 즐기는 것과 필요라는 것의 양자의 결합으로 현실과 꿈이 합쳐지듯이 노동과 보상, 필요와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으로 기계적인 노동의 성격이 극복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노동에 관련된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수단으로 노동이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독과 소외감과 같은 인간 고뇌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의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단절에서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고뇌의 극복 가능성을 확신하는 프로스트는 도전 정신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수용하고 때로는 조화시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인간의 고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 IV. 결 론

프로스트의 시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그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 자신의 내적 갈등 등의 관계를 통해 해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시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직면하여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거나 인간에게 무심하고 냉혹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 상호 관계에서의 고독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대화의 부족 또는 무관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고뇌의 양상으로 먼저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들 수 있다. 자연은 때로는 호의적이어서 인간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대단히 무관심하고 때로는 위협적이어서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대립과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냉혹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관심하고 위협적인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감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에게 기쁨과 희망, 용기를 주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거대성, 다양성, 파괴성을 인식한 프로스트는 그로 인한 인간의 공포와 좌절, 인간성의 한계를 시 속에 전개한다.

프로스트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단절과 갈등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속에서 인간을 성찰함으로써 한계를 배우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프로스트의 시에서 시 속의 인물들은 자연과 동화 또는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괴리감을 재확인하게 되며 인간과 자연의 대립

과 긴장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 심화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적인 도피로 위안을 찾으려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꾸준한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간이 겪는 인간 고뇌의 양상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프로스트의 삶을 해명하고자 하는 탐구가 삶과 노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담장 고치기」에서는 담장을 같이 쌓는 이웃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갈등이 아니어서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계 또는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공존해야 하는 관계로 그려져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부정적 자연과의 대립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거나, 노동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간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세 번째 인간이 겪는 갈등의 양상으로 인간의 존재나 사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의 선택을 놓고 번민하는 내용으로 일회적 인생 살이에서 선택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현실생활에 지친 화자가 숲속으로 도피하고픈 심정과 현실에 대한 미련을 그의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프로스트는 자신의 시를 통해 현실의 삶이 고달플 때면 이상의 세계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지만 지상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의 삶의 애착과 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프로스트의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겪는 고뇌의 극복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프로스트는 위에서 열거한 인간의 고뇌 양상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그것을 순화시키고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자세를 시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내부 또는 개인과 다른 사람 간에 매우 위험스런 갈등과 대립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만 차츰 그것을 질서 있게 다루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내적인 생명력을 찾아보며, 고독 속에서 사랑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 또한 고뇌 극복의 또 다른 형태로 지상에서의 노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프로스트는 노동에 관련된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인생에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동이 괴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의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노동을 다룬 시를 통해 일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통해 인간 고뇌의 양상들을 극복하고 이 세상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항상 외롭고 좌절감에 빠지기 쉬우나 끈질긴 노력과 용기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프로스트는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프로스트의 시는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의 자연은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 문제에 집중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히 시의 배경이란 차원을 넘어 그가 그리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더 깊은 향수와 인간애를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명상과 삶의 해명을 위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이 때로는 인간에게 적의에 차있다 해도 결코 자연이 인간에게 악의에 찬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서의 고마운 자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 세계와 삶의 태도를 그의 시 「오늘을 위한 교훈」(“The Lesson for Today”)에서 “묘비에 나의 일생을 쓴다면 세상과 사랑싸움을 했다고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련이나 고독과 고통, 불행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프로스트의 신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가 자연이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자연이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포근하고 호의적인 쉼터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인간이 마주쳐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프로스트는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자연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나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두절과 같이 심화된 비극적 현실 속에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간 고뇌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도전 정신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수용, 조화시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독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 Bibliography

### I. Primary References:

Frost, Rober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 *Se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Hyde Cox and Edward Connery Lathe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II. Secondary References:

Barry Elaine. *Robert Frost*. New York: Frederik Unger Publishing Co., 1973.

Cowley, Malcolm. "The Case Against Mr. Frost."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Cox, Hyde & Lathem. Edward Connery. Ed. "The Figure a Poem Makes." ,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Cox, James M.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Cox, Sidney. *A Swinger of Birches: A Portrait of Robert Fros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7.

Doyle, John Robert Jr.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62.

French, Roberts W.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 *Critical Essays on American Literature*. Ed. Phil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Gerber, Phillip L.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Boston: G. K. Hall &



- Co., 1982.
- ,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66.
- , *Twayne's Series-Robert Frost*. Boston: Twaynes Publishers, 1982.
- Hall, Dorothy Judd. *Robert Frost: Contours of Belief*. London: Ohio University Press, 1984.
- Lathem, Edward Connery.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Inc., 1997.
- Lentricchia, Frank. *Robert Frost: Modern Poetics and the Landscape of Self*.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75.
- Lynen, John F. "Frost as Modern Poet." ,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Montgomery, Marion.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Newman, Lea.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The New England Press, 2000.
- Nitchie, George W. *Human Values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0.
- Poirier, Richard.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Potter, James L. *Robert Frost: Handboo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 Ryan, Alvan S. “Frost and Emerson: Voice and Vision.” ,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 Sweeney, John David & Lindroth, James. *The Poetry of Robert Frost: A Critical Guide to Appreciation of Meaning, Form, and Styl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 Thompson, Lawrance. Ed.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 Trilling, Lionel. “A Speech on Robert Frost: A Cultural Episode.” ,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1962.
- Untermeyer, Louis. *The Pocket Book of Robert Frost's Po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46.
- Winters, Yvor. “Robert Frost: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김동성. 『가 보지 못한 길』. 서울: 우일문화사, 1989.
- 김진태. 「Robert Frost의 시 연구: 삶의 해명을 위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5.
- 신재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자연시: 그 일탈의 미학』. 서울: 태학사, 2004.
- 이상욱. 『걸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서울: 솔 출판사, 1995.
- 장정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통해 본 고독과 소외의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전해운. 「Robert Frost의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Abstract>

Aspects and Overcoming Man's Sufferings  
in Frost's Poems

Yeong-hye Y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on-deok Hur)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Robert Frost(1874-1963) wrote a large number of poems about the natural background of the New England. He describes largely the drama of people in nature. In his poems nature has the meaning of affecting men and is related to the men who lives in it. Frost uses nature as a background to express his poems with uncertainty, fear, solitude and isolation. Frost's persistent concern in his poetry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life on the earth.

Frost's poems treating men's suffering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that Frost deals with is the troubles between man and evil nature. He shows that human beings feel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destruction and cruelty of nature. Therefore, the duty of man is to perform his tasks faithfully as long as he lives on earth. To overcome his alienation and loneliness in nature, it is necessary that man should conform to his natural environment. Men should also try to be in harmony even with the sinister image of nature. Men lives inevitably under the rule of nature. He must admit this an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7.

adjust himself to it.

In the second aspect, Frost also shows the conflicts between people caused by a lack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To illustrate this, he concurrently describes physical lab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sing symbolic, natural background. In his poems,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compromise and the conflict ends in recognizing the other's individuality.

In the third aspect, Frost writes about man in confusion between his ideals and the ultimate reality he belongs to. To overcome man's confusion Frost emphasizes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life a man can obtain from labor. It is desirable for him to do his best within the limit of his ability.

Frost's poetic focus is always hovering over the vast but colorful abyss of human concerns. What Frost's poems claim is that though human beings are helplessly a part of nature, human beings should establish an identity of their own through a positive action of coping with nature to continue their lives on the earth. Therefore Frost's poetry clearly shows such process of overcoming human being's sufferings and as a result, his poetry has come to take on modern elements which can make every reader comprehend with sympath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what is Frost's effort toward a solution and what wisdom he finds to overcome the sufferings which human beings have. Through Frost's poetry we can see how he sees the human inner mind and how we also should learn his wise attitude toward survival in this world.